

한 눈으로 보는 경제		31일
코스피지수	1754.64	▲ +37.52
코스닥지수	569.07	▲ +26.69
환율(원·달러)	1217.40	▼ -7.00



LG유플러스·네이버·쌍용차 맞손 커넥티드카 서비스 '인포콘' 론칭

쌍용자동차에서 LG유플러스의 사물인터넷(IoT)과 네이버의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LG유플러스, 네이버, 쌍용자동차는 커넥티드카 서비스(사진)를 4월 론칭한다고 3월 31일 밝혔다. 서비스 브랜드명은 인포콘. 정보통신기술(ICT)과 자동차를 융합하고 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커넥티드 기술 특성을 반영해 정보+오락(Infotainment)과 연결(Connectivity)을 조합했다.

쌍용 코란도와 티볼리 두 모델에 적용할 예정이다. 서비스 영역은 안전 및 보안, 비서, 정보, 즐길거리, 원격제어, 차량관리 등이다. 예를 들어 사고로 에어백이 작동하면 상담센터로 자동연결되어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 스마트폰과 연동된 LG유플러스의 스마트홈 기기를 제어할 수 있고, 네이버의 AI 플랫폼 클로바도 이용할 수 있다. 전문 음악 플랫폼을 이용한 스트리밍과 네이버의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도 즐길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쌍용자동차, 테크 마힌드라와 함께 2016년 통신망 기반 커넥티드카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기술을 개발해 왔다.

김명근 기자

이베이 "1분기 쇼핑키워드는 '홀로'"

이베이코리아가 GM마켓과 육선의 1분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건강·면역용품(Health Care), 대용량 제품(Oversize), 집콕 제품(Life at home), 온라인쇼핑(Online Shopping) 제품 판매가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일상이 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건강과 의료용품은 판매량이 148%나 급증했다. 마스크가 포함된 호흡·수면건강용품은 3배(222%)가 늘었고, 영양제와 홍삼 등 건강식품도 18% 증가했다. 대용량 제품은 즉석밥과 통조림 등 대용량 가공식품, 신선식품, 생필품 등에서 증가했다. 재택근무와 홈스터디로 노트북 판매가 늘었고, 장난감과 운동기구의 판매도 증가했다. 또한 언택트 소비 확대로 e쿠팡 판매도 63% 증가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차량공유 플랫폼 '비마이카' 올 270억 투자 유치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 1위)

고급차 구독·보험대차 중개 등 차량공유 전문기업
조영탁 대표 "올해 플랫폼 내 거래 2000억 넘을 것"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 비마이카가 올해 누적 투자 270억 원 유치를 성공했다.

우선 벤처캐피탈 네오플렉스와 2월 체결한 250억 원 규모의 주식매매계약에 대한 납입이 완료됐다. 이에 앞서 1월에는 한라그룹의 지주사인 한라홀딩스로부터 2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받았다.

비마이카는 지능형 차량공유 플랫폼을 기반으로 모빌리티 관련 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능형 차량공유 플랫폼에는 전국에서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차

량 5만4000여 대가 등록돼 있어 언제 어디서든 차량 제공이 가능하다.

이를 토대로 '렌카' 브랜드를 통해 보험대차 수요자와 렌터카 사업자를 잇는 중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보험대차란 사고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상대방 보험회사가 사고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렌터카를 말한다.

이와함께 차량구독 서비스인 '카로'도 운영 중이다. 회원가입비와 월정액을 내면 포르쉐, 벤츠, BMW 등 다양한 브랜드의 외산 고급 자동차를 바꿔가며 이용할 수 있다.



올해 누적 투자 270억 원 유치를 성공한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 비마이카의 조영탁 대표. 사진제공 | 비마이카

조영탁 비마이카 대표는 "모빌리티 환경이 소유에서 공유로 넘어가는 중요한 시점에서 차량 공유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2020년에는 플랫폼에서의 거래 20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iyaj@donga.com



롯데면세점, 업계 첫 '스마트 스토어' QR 코드 쇼핑으로 대면 접촉 최소화

이제는 면세점도 언택트(비대면) 소비가 새로운 트렌드로 떠올랐다.

롯데면세점(대표이사 이갑)은 업계 최초로 언택트 소비를 위한 스마트 스토어(사진)를 오픈한다. 520㎡ 규모의 뷰티 전문 매장으로 화장품, 향수, 뷰티 디바이스 등을 판매한다. 오프라인 매장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고객체험을 강화하고, 대면 접촉을 최소화했다.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입구에 있는 QR 코드를 스캔하면 전용 모바일 카드에 접속하게 된다. 이어 매장에서 마음에 드는 상품의 바코드를 스캔해 제품 상세정보, 상품평, 재고 수량 등을 확인한 후 모바일 장바구니에 담으면 된다. 쇼핑이 끝나면 고객별 고유 QR코드를 직원에게 보여주고 일괄 결제하면 된다.

모바일 카드 접속 QR코드는 중국 최대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으로도 스캔할 수 있으며, 상품별 상세정보는 국문, 영문, 일문, 중문 간체자 등 4개 언어로 제공한다.

김재범 기자

에어비앤비, 호스트에 3200억 지원

숙박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각국의 에어비앤비 호스트를 위해 총 3200억 원에 달하는 재정 지원에 나선다. 에어비앤비는 2억 5000만 달러(약 306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예약취소로 호스트가 돌려주는 환불금 일부를 부담한다. 또한 1000만 달러(약 122억 40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해 조건에 맞는 에어비앤비 호스트에게 최대 5000달러(약 612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재범 기자

한국로슈·로슈진단, 코로나19 성금 1억

한국로슈와 한국로슈진단은 3월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공동성금 1억 원을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성금은 코로나19 재난 취약계층의 위생용품 및 기초 생필품 구입과 방역, 생활비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정용운 기자

비즈 패트럴 | 국내여행 해빙기...해외여행은 빙하기

봄꽃 덕? 국내여행시장 꿈틀

3월 심리지수 2주째 완만한 상승세
해외여행심리는 사상 최저로 하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해외여행 심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여행전문 조사기관 컨슈머인사이트는 2015년부터 매주 '3개월 내 해외여행 계획' 설문을 실시하고 있는데, 3월 셋째 주 조사에서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16%에 그쳤다. 올해 첫 조사였던 1월 초의 36%에서 절반 이하로 줄었고, 조사를 진행한 이래 역대 최저치다.

해외여행 심리는 지난 3년간 30%대 중반을 유지했다. 경기침체나 일본불매운동(NO 재팬)의 영향 속에서도 크게 줄지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직

격탄을 맞은 이후 해외여행 심리는 급락했다. 1월 36.5%를 기록한 이후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최대에 이르렀던 2월 3주차에 24.7%로 떨어졌다. 이후 22.4%→18.7%→16.2%로 조사 때마다 최저치를 경신하며 내려갔다.

여행목적지별로 보면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중국과 한국인 입국금지를 빠르게 시행한 베트남 등의 영향으로 아시아 여행심리가 9.1%로 가장 낮았다.

●국내여행심리, 봄소식에 조금씩 풀려

공공 얼어붙은 해외여행 심리와 달리 동반하락하던 국내여행 계획은 최근 완만한 상승세로 돌아섰다. 1월 첫 주 때 67.3%였던 국내여행 계획은 3월 첫 주 때 54.1%로 최저점을 찍었다. 이후 2주차부터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봄꽃 소식이 전해지고, 기온이 따뜻해지는데다, 장기간 이어진 '사회적 거

리두기'에 지친 심리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 제주, 부산 등 국내여행 인기 톱3는 변함이 없었다. 특히 그동안 코로나19 집단감염 소식으로 계획이 절반 가까이 줄었던 부산과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여행심리가 소폭이지만 반전을 보였다.

현재 한국인 입국제한이 180여 개국에 달하고,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이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아 대안으로 국내여행 수요가 늘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전국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성급한 여행심리 상승은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컨슈머인사이트의 조사에서 4월 말에서 5월 초의 연휴기간에 여행계획이 있다는 의견이 많아 관광·방역 당국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건강 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목·허리 등 척추질환, 수술 없이 '도수치료'로 개선 가능

허리디스크를 장기간 방치하면 다리 저림 증상과 엉치뼈가 당기는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심할 경우 허반신이 마비되면서 걷는 것이 힘들어진다.

최근에는 도수치료를 이용한 비침습적 치료가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약물이나 주사, 시술 등이 아닌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의 손만으로 이뤄지는 비침습적 치료법으로 도수 의학을 집콕해 척추질환 및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한다. 잘못된 습관으로 굳어진 골격, 근육의 정상화와 틀어진 근골격계를 바로잡아 신체 불균형을 교정하는 것이 치료의 목적이다.

도수치료는 척추와 체형교정에 뛰어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성통증과 검사상 발견되지 않는 원인 모를 통증 및 두통 개선은 물론 신체교정과 혈액순환 기능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척추변형으로 인해 늘린 신경을 해소시켜 주고 주변의 근육 및 인대의 손상까지도 파악해 통증 해소는 물론 통증의 근원적인 원인까지 치료할 수 있다.



다만 도수치료는 시술자의 숙련도와 전문성에 따라 효과가 차이날 수 있으며,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치료사에게 받을 경우 신경이 손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도수치료를 전문성을 가진 시술자가 수행하는 병원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승연 가산 정형외과 척추내원 대표원장

청주 정형외과 뿌리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선도병원 지정

충북 청주 정형외과 뿌리병원(사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20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선도병원'으로 지정받았다. 충북에서는 두 번째이고 중소병원으로는 처음이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선도병원은 기존의 운영 경험을 가진 병원이 새로이 정책을 도입하는 병원에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해 운영하는 사업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을 대신해 전문 인력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24시간 환자를 돌봐주는 간호서비스이다. 환자는 간병비의 부담을 줄여 들면서 질 높은 전문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청주 뿌리병원 관계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통해 환자와 보호자의 만족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환자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고 전했다.

지방 중소병원들은 인력난으로 인해 사업개시를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2019년 2개 병동을 개소한 청주 정형외과 뿌리병원은 200병상 규모의 풍부한 의료경험이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 6인과 신경외과, 내과, 일반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가정의학과와 구성으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원 준비부터 환자들의 동선을 고려해 설계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대학병원 수준의 최신행 MRI, CT 등 첨단 검사장비와 수술 및 치료 장비를 갖추었다.

또한 17인의 전문 의료진과 신속하고 정확한 진료를 위한 전자차트와 PACS영상, 전자결재 등을 이용한 완전한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양형도 기자 hmyang0307@donga.com